

보살의 길

2008년 봄호 제 33호



▲ 2008년 3월에 시작한 한글교실



사회복지법인 예명복지원
예명불교양로원

생명의 자존



진 관 사무국장

몸은 여인의 마음과 옷자락에서부터 온다 했던가. 거리를 활보하는 여인네들의 말소리와 얼굴에 봄은 이미 와 있었다.

이땅의 모든 생물은 봄을 시작으로 싹을 틔우고 생명을 탄생시키니 참으로 그 오묘함을 우주의 섭리가 아닐까?

작년 11월 5일은 나에게도 우주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경외로움을 느낀 하루였다.

생명이 태어난 것이다. 바로 손자를 보게 되었다. 나는 그 조그만 생명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고 경외의 감정으로 한 순간 기쁨과 두려움과 무엇이랄 말할 수 없는 희열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복 바쳐 올라 가슴이 뛰었다. 며느리가 아기를 껴안고 그윽한 눈빛으로 보는 모습을 보고 세상 어머니들의 위대함과 깊은 사랑을 새삼볼 수 있었다. 나와 집사람 그리고 아들 녀석도 산모와 아기가 건강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감사했다. 생명의 존귀함을 어찌 모르랴, 허나 때로는 사람들은 생명을 짓밟고 죽이는 하늘의 두려움을 모르는 행위가 이 사회에 종종 있으며 어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주와 하늘의 섭리를 무시한단 말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생명의 존귀함을 모르는 자는 곧 죽은자이니 그는 하늘의 노여움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우리는 생명의 경외로움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형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이 생명자존의 법칙이다. 내 손자 녀석도 이러한 법칙에 의해 태어나고 미래의 그의 삶도 이런 법칙에 의해 살아 갈 것이다. 내 조상들이 나를 낳아 주었듯이 내가 아들 녀석을 낳고 아들이 손자를 낳았으니 이게 바로 우주의 섭리이고 하늘의 법칙이다. 불교에서의 윤회사상도 이와 같다고 본다.

내 손자의 존재로 나의 감정과 집사람의 마음 아들의 마음 며느리의 마음이 경외와 희열로 귀의 되니 이것이 바로 생명의 진실이고 존귀함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노애락 중에 생명의 탄생은 희와 락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사회에 봉사하고 나눔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도 이제 4개월이 된 손자 녀석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라 마음이 즐겁고 편안해 진다.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 느낀다.



박미란 말벗 자원봉사자

‘말벗 되어드리기’ 1년의 기억들

혜명 양로원과의 인연은 작년 3월초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원 과정의 수업 중에서 현장에 나가야 하는 수업이 있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가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 수업이 가지는 목적 중 하나였다.

그런데 말벗 되어드리기라는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없어서 오해를 좀 받았던 것 같다. 한 6개월쯤 넘어 친해지니까 한 할머니께서 사람들이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이상한 사람인줄로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이런!

혜명 양로원에서 받았던 첫인상은 따뜻하고 깔끔하고 세심하다는 느낌이었다. 공간 구성도 시원시원하고 방마다 화장실에 싱크대도 있고, 정갈한 식사에 간식까지 나오는 것이며, 피곤 냄새나 향 피운 향기가 감돌고, 옷이며 이부자리가 단정한 것이 이전에 가졌던 양로원이나 노인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게 하는데 충분했다. 내실 있는 행사며 체계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도 신선했다.

할머니들께서도 친절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 많아 양로원이라는 낯선 공간이 낯설지 않게 여겨지고 친근해졌다. 어린 사람이라 무시할 수

도 있을 텐데 선생이라며 존중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다. 하기 쉽지 않은 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절로 할머니들이 좋아지고 감사했다.

하지만 혜명 양로원의 할머니들을 뵈면서 좀 아쉽고 마음이 찢힐 때가 있다.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실 때 허무해지기도 한다. 그나마 신체가 퇴화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정신을 놓으실 때는 참 허망해진다. 또 양로원에 들어온 것을 수치스러워 하거나 평가절하하실 때는 마음이 불편하다.

할머니들께서 살아온 시대가 일제 시대, 6.25의 격동의 시절이었고, 과거에는 여자들이 자기를 계발할 수 있는 조건을 전혀 가지지 못했기에 할머니들의 오늘은 할머니의 탓이 아니다. 죄가 있다면 열심히 산 죄밖에 없으신 분들이다. 위축되지 않고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오래오래 사시기를 소망한다.



“

어르신 얼굴

을 떠올리며... ”



이 선 경 실습생



오두들 잘 계시죠? 할머니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오긴 하는데, 글은 처음이네요”””.

실습이 끝난 지도 23일 가량이 다 되어가요.

마지막 날 할머니들과 인사를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손도 꼭 잡고.

꼭 놀리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의 일상에 익숙해진 버릇네요.

시간이라는 것”””, 그 순간의 느낌을 까마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버스로 승차하는 할머니,

무거운 짐을 들고서 허리를 두드리는 할머니,

스쳐지나가는 경로당안의 할머니들을 보면 문득문득 양로원의 할머니들이 생각나곤 하는데”””

마음만 앞서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내가 이상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복지사님들께 좌옹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실습기간동안 제 개인사정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지사님 덕에 노인복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적극적으로 실습기간에 임했다고는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복회도 너무 많이 되고 그래서 더욱 지금의 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마인드 확립에 큰 영향력이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같네요. 밝은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요즘에 노인복지공부를 통통이 조금씩 하고 있어요.

양로원 실습하고 나니깐 환경이나 문제점같은 것이 그냥 들린 것보다는 확실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참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해 젖어요.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혜명 한마당



| 만두빚기 |

2월5일 설명절을 앞두고 양로원의 할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떡국에 넣어 드실 맛있는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의 설 분위기를 얘기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셨습니다.



| 설제사 지내기 |

2월7일 설날 이른 아침 어르신들이 모여 설날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어르신들 마다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분들에게 제사를 지내시는 모습이 정성스러워 보이십니다.



| 원장님 신년인사 |

2월12일 박재근원장님께서 운영간담회 자리에서 무자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화목하게 지내시라는 덕담을 하셨습니다.



| 정월대보름 율놀이대회 |

2월21일 대보름을 맞아 올해도 양로원에서 남·녀 대항 율놀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2년승을 하여 할머니들 모두 응원했으나 할아버지가 또 우승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축하드리며 우리 할머니들 내년엔 꼭 우승하세요!



| 한글교실 |

이름을 쓰지 못하는 할머니들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긋기부터 시작해서 이름쓰기가 목표인 한글교실은 이름 한자 한자를 배워가며 단순히 이름쓰기가 아닌 대화의 장도 되고 작업치료의 효과도 보는 등 일석삼조로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 연등만들기 |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반야회 팀이 원내 법당에 달릴 연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손길가득 정성을 담아 꽃잎 한 장 한 장 붙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침 일찍 먼 길마다 하지 않고 달려오신 우리 반야회 1기, 3기 어머니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원예활동 |

3월 9일 양로원 마당에 있는 화단에 울타리도 치고 펜자꽃도 심으며 봉단장을 했습니다. 울타리는 깊이 박히도록 꼭꼭 누르고 꽃은 살살 심으며 잘 자리잡아 더 많은 꽃을 피우기를 바랐습니다.



| 선거 참여 |

제 18대 총선에 양로원의 어른들도 귀중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아침식사 후 미리 나눠드린 투표용지를 들고 한분한분 투표장으로 가서서 투표를 하시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차량으로 투표장까지 모셔드렸습니다.



| 소방안전교육 |

3월14일 어르신들과 직원의 소방안전교육이 있었습니다. 늘 강조해도 부족한 화재예방교육을 들으며 우리의 원생활에서 쉽게 생각했던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기회였습니다.

해명동침



해명양로원 시설



▲ 해명양로원 법당



▲ 해명양로원 거실



▲ 해명양로원 정선

시설개요

- 시설명 : 해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 재 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 : 28명 / 여 : 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입소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수급자 증명서 1통
- 보건소 건강진단서 1통
- 증명사진 5장
- 우리은행통장
- 주민등록증 · 도장

입소대상

-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현재 입소인원 (3월 31일 현재)

- 현원 : 62명 • 할아버지 : 27명 • 할머니 : 35명

직원 현황

- 총 16명
- 원장 1명 / 사무국장 1명 / 시설과장 1명
- 간호사 1명 /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 생활지도원 5명 / 위생원 1명 / 서무 1명 / 조리원 3명

자 원 봉 사 자

2008년 1월 1일 ~ 2008년 3월 31일

동국대한방병원, 이승희, 김향신, 박은주, 임진빈, 민경숙, 윤숙녀, 이양수, 안정희(밀그림색칠), 문덕녀, 홍순자, 박상화(대림미용실), 이푸름, 김병호(영등포교도소이발), 금천문화원무용반, 임호순외6명(치과진료), 김미경, 권연숙(종이접기), 금천보건소, 윤순재(사랑의모임국악팀), 조규용, 고병득, 윤소원, 조맹영, 김용기(그신대침술봉사팀), 조기환(물리치료), 임지현(건강체조), 백련사신도님들, 천종임(경기민요), 김하늘(차밍댄스), 묵향법사, 지영옥, 김상영, 묵향, 신세왕, 최미자이순교, 김덕문, 정지윤, 황득효, 지오스님(찬불가봉사팀), 홍은석, 황숙희, 김영희, 선재심, 윤명심, 손정숙배현순, 장소순, 이호경, 전별문, 최정혜, 최현임, 마정임(반야회1기), 이현옥, 배규인, 장소영, 한봉옥, 이선영, 한미정이영옥, 최금옥, 임은영, 안영미, 지춘재(반야회3기), 박미란(말벗), 한은옥한정옥, 남미영, 최소희, 고영수, 전초이, 안성수(우담바라), 김도연(이야기시간)홍덕신, 채명훈, 장진하, 위진영, 신수진, 김도진, 강선권, 송한별, 송예술, 박가현, 박지현, 김혜미, 권지현, 유재운, 신수정, 신수진, 홍은지, 권지연, 박윤미, 이원근(금강정사학생회)이정순, 고병님, 전선순(한글교실)조창길, 임영희, 안현숙, 장미숙(수지침)

후 원 자

*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물품후원

금천푸드뱅크, 서울노인복지협의회, 계성초등학교어머니, 섬진섬유, 제주도농협, 셋별어린이집, 조찬규, 혜명회, 최경애, 사랑의실천운동본부, 금천푸드뱅크, 이윤분, 우담바라회원, 기업은행, 유상진 독지가, 이귀자, 구청여직원회, KBS, 강성원우유, 보명사, 마장어린이집, 최영안, 금천구청, 봉원사, 금천구자원봉사센터, 서서울과학고등학교, 탑동초등학교14회 모임, 이성호

지로후원

백승풍30,000	안정희30,000	이재임5,000	임옥수40,000	은선사30,000	김혜광40,000
박영옥10,000	박세진40,000	윤재순60,000	문금자30,000	이정호15,000	서현종20,000
이애자30,000	구충수130,000				

현금후원

서울노인복지협의회45,000	원금천우체국100,000	금천세무서300,000	금천구청40,000
한진택200,000	영등포교도소300,000	강윤호200,000	독지가10,000
박혜정30,000	양보금30,000	반야행100,000	조성한20,000
유규동30,000	안효주200,000	조원정30,000	마희전40,000
서권순10,000	이경신80,000	김지현100,000	전정자10,000
한순문20,000	임재호10,000	산수회500,000	진승준35,000
전삼순10,000	이기선10,000	박성수60,000	최형기20,000
권기상10,000	박두영5,000,000	한태규50,000	한진택100,000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 후원내용 : 현금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 류

정성을 기다리는 후원금 계좌번호

- 지로번호 : 7655940
-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예금주 : 혜명양로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흥역마을버스금천01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5617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co.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발행인 : 박 재 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